

# 국경없는의사회

MÉDECINS SANS FRONTIÈRES



오늘날, 세계의  
모든 여성은 건강한가요?

여성 건강을 위한 국경없는의사회의 노력

##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0614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조이타워 5층  
전화 02-3703-3500  
팩스 02-3703-3502

-  www.msf.or.kr
-  facebook.com/msfkorea
-  @msfkorea
-  @msfkorea
-  youtube.com/msfkorea
-  @국경없는의사회
-  blog.naver.com/msfkr

- 사무총장** 티에리 코펜스
- 보좌관** 하신혜
- 현장인력 채용팀** 줄리 페통
- 재무/인사/사무팀** 김알렉시  
김은선  
신은경  
조혜원
- 후원개발팀** 윤지현  
김지영  
김희로  
신한나  
오민정  
정유정
- 홍보팀** 윤주웅  
김미정  
심연우  
이주사랑  
정지향  
최정혜
- 디자인** slowalk

## 목차

- 03** 여성 건강을 위한 국경없는의사회의 노력
- 04** 산모 건강 지원  
산모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는 일  
난산 여성들의 억울한 낙인 같은 질환, 산과 누공
- 07** 성폭력을 치료하는 일  
전쟁의 사상자, 여성들과 소녀들  
'안정된' 곳에서 벌어지는 재앙
- 09** HIV 모자간 수직감염 예방  
말라위에서 온 편지
- 10** 난민과 국내 실향민  
시리아 전쟁 중의 임신과 출산  
국경없는의사회 병원만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 12** 현장인력 채용 정보
- 13** 2017 세계 여성의 날
- 14** 후원 참여
- 15** 당신의 후원이 지구촌 엄마와 아기의 내일을 지켜줍니다



### COVER PHOTO

성공적인 출산으로 기뻐하는 소녀와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 Laurence Geai

## 여성 건강을 위한 국경없는의사회의 노력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음포코 캠프 내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서 출산 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 21세 아프리카 여성 소나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언제나 화제가 됩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이 사실을 다시금 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우리가 만나는 환자들 대다수는 여성과 아동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의료 시설의 대기실과 병동에는 임신한 여성, 부상을 입은 여성, 아픈 여성, 자녀의 치료를 기다리는 여성들로 가득합니다. 분쟁이나 피난을 겪었거나 자연재해를 당해 기본적인 생활도 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여성은 성폭력·가정폭력, 무력분쟁 등 갖가지 폭력에 더 취약해집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많은 여성과 아동은 난민이나 국내 실향민, 즉 전쟁이나 불안정으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지난 15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임신 관련 문제로 사망한 여성의 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는 수많은 나라에서는 지금도 임신과 관련된 이유로 매일 약 830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중 대다수는 저소득 국가의 여성입니다.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 입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의료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한편,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로 출생 후 몇 주 사이에 목숨을 잃는 신생아도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는 HIV 양성인 산모가 태아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게 할 방법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매일 700명의 아동이 HIV를 안고 태어납니다.

수년간 여성 보건 전담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온 우리의 현장 팀들은 양질의 여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전 진료, 임신 중 진료, 응급 산과 지원, 산후 지원, 피임 및 가족계획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산모 사망률과 영아 사망률을 낮추고자 하는 폭넓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신생아 지원 및 산과 지원은 모든 긴급 상황에서 국경없는의사회 대응 활동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장기 프로그램 다수는 보다 광범위한 산부인과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은 새로운 것도, 알려지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이 문제들은 적절히 다루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경없는의사회는 훈련된 의료진을 통해 저비용의 간단한 방식으로 의료 지원을 하는 것으로도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왔습니다.

여성 건강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보내 주시는 여러분의 지원에 국경없는의사회 팀들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티에리 코펜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 산모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는 일



© Matthias Steinbach

임신한 여성을 검진하고 있는 남수단 바르엘가잘 주의 국경없는의사회 조산사

국경없는의사회 의료 지원팀들은 출산 서비스, 긴급 산과 지원, 산후 진료 등을 제공하며 임신부들을 돕습니다. 고위험 분만을 신속히 찾아내 산모 사망을 막기 위해, 우리는 조산사들과 전통적인 출산 도우미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사망의 99%는 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는데,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 대부분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735,800회**

2015년 국경없는의사회 지원이 실시한 산전 진료



**830명**

임신 및 출산 합병증으로 매일 사망하는 전 세계 여성의 수



**243,30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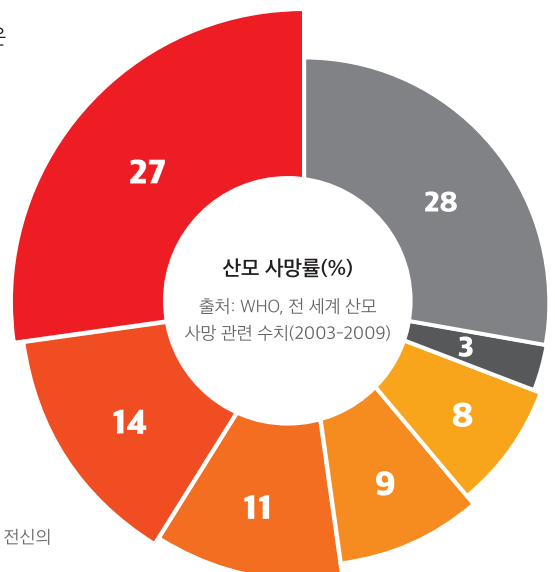
2015년 국경없는의사회가 도운 출산



### 산모 사망은 왜 일어날까요?

산모 사망의 약 75%는 아래와 같은 합병증에서 비롯됩니다.

- 분만 후 출혈 27
- 임신 관련 고혈압(자간증)\* 14
- 감염 11
- 분만으로 인한 합병증 9
- 안전하지 않은 낙태 8
- 혈액응고 3
- 이전부터 갖고 있던 질환의 악화 28



\*자간증(eclampsia): 임신 중이나 분만 시, 전신의 경련 발작과 의식 불명을 일으키는 질환

## 국경없는의사회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 분만 후 출혈 예방하기

분만 후 출혈을 예방하려면 분만 3기에 위기 요인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수단과 같은 국가에서 지역사회 의료진이 그러한 경계 징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병증이 발견되면 예방 조치로 옥시토신을 처방합니다. 출혈이 심할 때에는 자궁 안에 묻혀 있는 혈액을 다 비우기 위해 자궁을 마사지하고, 정맥 수액을 처방합니다.

### 자간증 치료하기

자간증에 걸린 산모는 분만 중에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분만 시에는 숙련된 의료진과 필수 의약품이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처 방안은 산과 지원을 얼마나 구할 수 있는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시리아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여러 환경에서 긴급 산과 지원을 합니다. 항고혈압제와 같은 의약품을 조달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제왕절개 실시를 돕기도 합니다.

### 감염 예방하기

생식기 감염을 예방하려면 분만 중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

적입니다. 분만을 돕는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비닐 덮개를 준비하는 등 분만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위생적인 환경 속에 분만이 이루어지도록 돕고자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여러 나라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열어 운영해 왔습니다.

### 고위험 분만 지원하기

고위험 분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직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개입이 필요하다는 징후를 신속히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연 분만이 나타날 때는 정맥 수액과 항생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제왕절개가 필요한 시점을 식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외과의사들은 중앙 아프리카공화국이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 활동하면서 제왕절개를 다룰 수 있는 숙련된 직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담과 의료 지원

국경없는의사회는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합병증을 앓게 된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과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피임약을 제공하고, 계획 임신에 관한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 산과 지원 시 치명적인 '3대 지연'

국경없는의사회는 산과 지원에 나타나는 '3대 지연'을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산모와 아이의 생명 모두를 지키기 위해 결정적인 것들입니다.



1 **의과 지원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기까지 나타나는 지연**



2 **의료 시설까지 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3 **의료 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까지 생기는 지연**

©Martina Bacigalupo



콩고민주공화국  
산부인과 의사 정의



정의  
국경없는의사회 산부인과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인큐베이터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2kg 미만의 조산아나 미숙아를 살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간이발전기를 통한 산소 공급도 쉽지 않고, 산모나 태아의 영양 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산모가 만삭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삭에 장작이나 바나나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산모가 하혈을 심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수술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말했던 또 다른 일은 함께 일하는 현지 의료진과 조산아를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초음파기계를 사용하는 방법, 분만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출혈이 심한 환자를 치료하는 법, 약물 사용법 등을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도 물론 보람 있었지만, 현지 의료진들이 배움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면 '역시 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 난산 여성들의 억울한 낙인 같은 질환, 산과 누공

“해산하는 여인에게 두 번의 낮과 밤은 있을 수 없다”

- 아프리카 속담

2,000,000명

2015년 기준, 산과 누공 치료를 받지 못한 여성의 수



100,000명

한 해 평균, 산과 누공 신규 환자 수



© Martina Bacgalupo / VU

누공 치료 수술 전 에블린

산과 누공이란, 장시간 난산을 치르는 과정에서 질과 방광 사이가 벌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진통이 계속되면서, 태아의 두개골이 질과 방광 사이의 연결 조직을 누르게 되고, 이 상태가 얼마간 지속되면, 그 연결 조직이 죽게 되어 질과 방광 사이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방광질 누공(vesicovaginal fistula)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질과 직장을 연결하는 조직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가리켜 직장질 누공(rectovaginal fistula)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질을 통해서도 배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성을 마치 아랫사람처럼 여기는 사회 속에서 누공을 앓는 여성들은 수치심과 낙인을 경험합니다.

2007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소말리아와 나이지리아 북부 등지에서 195차례의 수술을 실시하며 처음으로 누공 치료 수술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1년까지 수술 횟수는 1,036회까지 늘어났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누공 치료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였습니다. 2013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총 1,032회의 누공 치료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환자 이야기



부룬디  
우루무리 센터에서  
누공치료를 받은  
이본느의 이야기

저는 스물다섯 살에 결혼 했고, 첫 아이를 가졌을 때 합병증이 있었어요.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출산을 도와주시던 분들이 제 아랫부분을 절개했거든요. 그 때 이후로 화장실 가는 데 문제가 생겼어요. 소변이 나와야 할 곳으로 대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둘째, 셋째를 낳을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됐어요. 병원에서 셋째 아이를 낳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제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절개된 부위가 너무 오래되어 다시 꿰매 수가 없다는 얘길 듣게 됐죠. 그러다가 우리 동네 무빔비(Mubimbi)에 국경없는의사회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룬디 기테가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우루무리 센터에서 다른 환자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이본느

저는 국경없는의사회를 찾아가 진료를 받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더니, 제 상체를 본 직원분들은 저를 기테가로 데려가서 그곳에 있는 우루무리 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누공 치료를 받고 우루무리 센터를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집에도 무사히 돌아왔어요. 집에 왔더니 친구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어요. 아이들도 다 건강했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우리집 소가 송아지를 낳았더라고요! 치료를 받고 싶었던 그 병이 사라져서 정말 너무 기뻐요!



© Martina Bacgalupo



누공 치료 수술 전 상담을 받고 있는 이본느

# 전쟁의 사상자, 여성들과 소녀들

“캠프로 돌아온 후 베아트리체는 며칠 동안 너무 창피하고 두려워서 그날 벌어졌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메가폰을 든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 Lena Mucha / MSF

콜롬비아 투마코에서 성폭력 환자에게 포괄적 정신 건강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팀

## 성폭력 피해자 베아트리체 이야기

조산사 앤 반 하베르(Ann Van Haver),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베아트리체는 2014년 1월에 음포코(Mpoko) 캠프에 들어온 약 10만 명의 피난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음포코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하 중아공) 수도 방기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몇몇 피난민 캠프 중 제일 큰 곳이었죠.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베아트리체도 계속되는 내전을 피해 자신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곳을 찾아 떠난 것이었습니다.

챙겨온 것들이 좀 있긴 했지만, 먹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아이들 옷도 낡아지자, 베아트리체는 필요한 물건을 챙기러 집에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방에 무장 군인들이 있는 그런 무법천지에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베아트리체는 그날 일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 옷을 챙기러 다시 집에 갔어요. 안에 들어가 싸갈 것들을 한참 챙기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도저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채 몸을 숨기기도 전에, 군복을 입은 무장 군인 5명이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어디 있냐고 물기에 여기 없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제게 총을 겨누면서 누우라고 강요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며 저를 덮쳤고, 그러는 동안 다른 두 사람이 저를 못 움직이도록 누르고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면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도 했어요. 다섯 사람이 모두 끝낸 후, 그들은 집을 나갔어요. 너무 지친 저는 누워서 잠을 청했고, 몇 시간 후에 캠프로 돌아왔어요.”

캠프로 돌아온 후로 베아트리체는 며칠 동안 너무 창피하고 두려워서 그날 벌어졌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메가폰을 든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음포코에서 일하는 국경없는의사회 보건 홍보팀이었죠. 성폭력 피해자들이 있으면 캠프 가장자리에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병원에서 저는 베아트리체를 처음 만났습니다.

베아트리체가 당하는 고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아공에서 활동했던 5주 동안, 제가 만났던 성폭행 피해 여성은 총 31명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곳 여성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저를 충격 속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밝히는 것은, 그 이야기가 믿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매우 안타깝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기도 합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15년 넘게 이어진 교전으로 나라가 황폐해진 콩고민주공화국(이하 민주콩고) 동부 지역에서는 매월 약 **1,100건**의 강간이 보고되고 있고, 하루 평균 **36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강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이 모든 것들은 보고된 수치에 불과합니다. 실제 피해자 수는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죠. 국경없는의사회 시설만 놓고 봤을 때, 지난 10년간 민주콩고 동부에서 국경없는의사회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성폭력 피해자 수는 **5만 4,000명**이 넘습니다.

## 숫자로 본 국경없는의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 현황

### 총 26개국

총 26개국에서  
1만 1,000여 명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치료



### 90%

환자들의  
90%는 여성과 소녀,  
10%는 남성과 소년



## 국경없는의사회가 치료한 성폭력 프로젝트별 신규 환자 수

### 3,724명

마타레(케냐) 2,429  
방기(중앙공) 675  
렛슈루(민주콩고) 431  
포트허커트(나이지리아) 189



\*2015년 기준

© Aurelie Baumer / MSF



## 파푸아뉴기니 '안정된' 곳에서 벌어지는 재앙



레베카 M 싱어(Rebecca M. Singer)  
국경없는의사회 간호사,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라에(Lae)에 우리 진료소가 있어요. 제니퍼가 진료소에 찾아온 건 하루가 다 저울 무렵이었죠. 한눈에 봐도 온몸을 잔인하게 구타당해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니퍼는 시내 한가운데 버스 정류장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남자 여섯 명이 나타나 제니퍼를 공격한 거죠. 심지어 그중 몇몇은 제니퍼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우선 제니퍼의 상처를 닦아 주고, 임신과 HIV 감염을 막기 위해 예방약을 주었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HIV 치료를 계속해야 하니 진료소에 계속 찾아오라고 했는데, 제니퍼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답했어요. 그런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다는 것이 너무도 수치스럽고, 앞으로의 일들이 두렵다고 했어요. 더는 문젯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이제 그만 그 모든 일을 덮어 버리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꼭 다시 오라고 간청했어요. 결국 제니퍼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었고, 제니퍼가 가려는 곳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 이후로 제니퍼를 다시 만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는 제니퍼를 보지 못했어요.

제니퍼는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자기뿐인 것 같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니퍼가 입은 상처, 정신적 충격, 깊은 수치심은 세계 곳곳에서 강간과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함께 겪는 일들이에요.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소위 '안정된' 곳, 즉 격렬한 분쟁은 없지만 아직도 끊임없는 성폭력의 위협이 있는 곳에서도 활동합니다. 파푸아뉴기니 역시 그런 곳입니다.



HIV 모자간 수직감염 예방(HIV PMTCT, Prevention of Mother-to-Child Transmission)이란 HIV 양성 진단을 받은 산모가 태아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도록 HIV 치료제를 이용해 실시하는 치료입니다.



2015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모자간 수직감염 예방 치료로 6,800명의 HIV 양성 산모와 아이를 살렸습니다.

PMTCT 지원 그룹과 함께 있는 에드나

© Stedele Willow Smith

HIV-양성 진단을 받았을 때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삼편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리지? 이제 우리 결혼이 끝이라고 하면 어저지? 어떻게 콘돔을 쓰라고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태아가 엄마한테서 감염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다는 말이 저도 믿음을 갖게 됐어요. 아이가 두 살이 되었을 때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기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 돌봐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말라위에서 온 편지



국경없는의사회의 HIV PMTCT 프로그램에 등록된 에드나 마을라나



무력 분쟁이나 치안 불안으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난민과 국내 실항민들의 다수는 여성과 아동입니다.



© Dominic Nahr

우리가 난민·국내 실항민에 대해 알아야 할 사실

-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혹은 특정 사회 집단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합당한 두려움 속에 고국을 떠나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 2 국내 실항민은 난민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긴 하지만, 그들은 나라 밖으로 탈출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 3 현재, 전 세계적으로 1,950만여 명의 난민이 있습니다.
- 4 현재, 전 세계 52개국에 약 3,820만 명의 국내 실항민이 있습니다.
- 5 한편, 전 세계적으로 망명 신청자도 180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난민 지위를 신청했으나, 아직 그 요청이 확실히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6 여러 저소득 국가들이 전 세계 난민의 86%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시리아 전쟁 중의  
임신과 출산

전쟁이 계속되는 시리아에서도 아기들은 계속 태어납니다. 심지어 분쟁이 활발히 벌어지는 지역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20년간 아이를 받아 낸 조산사 움 와심(Umm Wassim)은 알레포 동부가 계속된 공습 폭격 아래 놓였을 때 임신부와 신생아들이 겪어야 했던 극심한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정말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겁이 질려서 심리적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여성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미숙아로 태어나는 아기들도 확실히 더 늘었어요.”



© MSF / Anna Sumiyach



© MSF / Anna Sumiyach

식량 부족과 영양 결핍 때문에 중증 빈혈, 저혈당으로 고생하는 임신부들이 많아요. 이런 질환에 걸리면 구토를 하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빈혈이 너무 심해 수혈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요.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길 위에서 혹은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특히 밤중에 진통이 오는 경우에는 더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는 산모들도 있어요.

알레포 동부의 상황은 말 그대로 비극이에요. 우리들 중에 이 모든 싸움과 폭격에 익숙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낯날이 더 나쁜 상황이 펼쳐지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만큼은 기쁜 순간이죠. 그렇게 여기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 국경없는의사회 병원만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살아라는 소중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지 몰라요.”

© Enas Abu Khalaf-Turkha / MSF

### 시리아 난민 여성 다라의 이야기

22세의 시리아 산모 다라, 요르단 자타리 난민캠프

시리아 혁명 초반기에는 우리 식구 중 그 누구도 더 안전한 곳을 찾아 고국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격렬해지면서 우리도 결국 2012년 5월에 요르단 국경을 건너게 되었죠.

2013년 12월, 이르비드에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서 첫 아이를 낳았어요. 병원은 우리가 살던 곳에서는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아즐론에 살고 있는 시리아 난민인 제 이웃이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시리아 산모들에게 무료로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게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과 함께 곧장 이르비드로 향했죠.

출산 예정일을 몇 주 앞두고 저는 여러 번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4년 초에 딸아이를 낳았죠.

두 번째 임신은 첫 번째 임신만큼 수월하지 않았어요. 합병증이 생겨서 결국 조산아를 낳았거든요. 2015년 1월 17일 저녁, 그날은 6개월간 이어온 제 두 번째 임신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심한 복통과 하혈이 있었어요. 저는 이르비드에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이 우리를 받아줄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즐론에서 이르비드까지 한 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기로 결정했죠. 그날 저녁은 정말이지 너무 추웠고 눈도 내렸어요. 길은 또 얼마나 막히던지, 상황은 다급한데 계속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렇게 저는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으로 가는 동안 1시간 반이나 하혈을 했어요. 하지만 그 길만이 제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 선생님들은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즉시 수술실로 옮겨졌고, ‘압둘라’라고 이름을 지은 우리 아이가 2.4kg의 작은 몸으로 태어났어요.

치료와 관찰을 위해 압둘라는 곧장 신생아실로 옮겨졌고, 거기서 지내면서 다음달에 들어서니 몸무게도 늘고 하더라고요. 국경없는의사회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신생아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살아라는 소중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지 몰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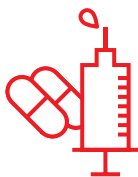
\*산모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압둘라의 어머니는 아기의 실명과 사진을 사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 여성의 생명을 살리는 구호 현장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소속 의사로서 현장에서 다루는 주요 질병은 각 현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다양한 질병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열대 의학 및 감염성 질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은 매우 유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현지 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업무, 의료 물자 및 장비를 관리하는 업무도 맡게 됩니다.

## 일반 내과의

- 의사 면허 취득 후 최소 3년 이상의 임상 경험
- 최근 임상 경력 증명 필요  
(최근 24개월 사이에 최소 6개월 근무) 증명 필요
- 훈련 및 관리 경험
- 현장 활동 기간: 6개월



## 산부인과의

- 전문의 자격 취득
- 최근 임상 경력 증명 필요  
(최근 24개월 사이에 최소 6개월 근무) 증명 필요
- 훈련 및 관리 경험
- 현장 활동 기간: 2개월 이상



## 소아과

-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거나, (소아과 전문 경력 3년을 갖추고) 전문의 과정을 진행 중인 의사(MD)
- 최근 임상 경력 증명 필요  
(최근 24개월 사이에 최소 6개월 근무) 증명 필요
- 성인 환자들도 기꺼이 돌볼 수 있는 자세
- 훈련 및 관리 경험
- 현장 활동 기간: 3개월~6개월



## 조산사

- 최소 2년 이상의 임상 경험; 고위험 임신 및 비정상 분만을 다루어 본 경험
- 최근 임상 경력 증명 필요  
(최근 24개월 사이에 최소 6개월 근무) 증명 필요
- 훈련 및 관리 경험
- 현장 활동 기간: 6개월



### 공통 자격 요건

- ✓ 최근 임상 경력(최근 24개월 사이에 최소 6개월 근무) 증명 필요
- ✓ 훈련 및 관리 경험
- ✓ 현장 활동 기간: 6주 이상
- ✓ 언어: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 불어 혹은 아랍어 우대



다쉬트-에-바르치 병원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안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국경없는의사회 조산사 감독 아킬라

© Najiba Noori

“모든 여성은 매우 강인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킬라, 국경없는의사회 조산사 감독

매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로, 이 날은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여성들의 업적을 기리는 날입니다. 2017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기념하며, 임신 및 출산 기간에 그들이 맞닥뜨리는 갖가지 위험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에서 아기를 낳기에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해마다 합병증을 앓고 목숨을 잃는 여성들이 4,300명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 여성들의 경우, 그 수는 50명에 이릅니다. 현재 국경없는의사회는 아프가니스탄 내 병원 4곳에서 산모와 아기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바쁜 워킹맘에서 구호 활동가가 되기까지...



**이선영**  
국경없는의사회 산부인과  
나이저리아, 남수단, 라오스, 파키스탄, 레바논 현장 파견

“단시간이었지만 친구같이, 때로는 자매같이 그리고 딸이나 엄마처럼 나를 받아  
들여 주던 생면부지의 환자와 현지 여성들의 미소와 사랑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저의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요즘 국경없는의사회의 구호 활동가로 지난 5년간 여러 오지에서 보낸 지  
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저는 집안일, 직장 일에 얽매인 워킹맘으로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보람 있으며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노후가 보장되며 약간  
은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저는 반강제  
적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오지를 다니느라 오랜 기간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고, 이후 한국에서의 저의 고용 상황과 노후는 불안정해졌습니다. 사실,  
오지 구호 활동이 힘든 것보다도 한국 사회에서 저처럼 사는 것이 정상적  
인가 하는 물음을 자신에게 해야 하는 순간이 더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  
런데도 저는 왜 계속해서 구호 활동을 떠날까요?

처음, 아프리카 땅에서 마주친 어리고 병약한 임신부들의 신음을 듣고 정  
신을 놓던 일에서부터, 깊은 산속에서 현대 의학이 뭔지 모르고 아이를 낳  
다가 죽어가는 아시아 여인들도 생각합니다. 구호 지역의 막막한 상황에  
무기력을 느끼며 냉소적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전쟁

으로 즐지에 모든 것을 잃은 난민 여성들이 겪는 위험한 분만 과정도 지  
켜보았습니다. 성폭력을 당하면 오히려 감추고 쉬쉬하는 등 여성의 인권  
이 제로인 지역에서도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만난 많은 이들이 나를 이해해주  
고 도와주었습니다. 단시간이었지만 친구같이, 때로는 자매같이 그리고  
딸이나 엄마처럼 나를 받아들여 주던 생면부지의 환자와 현지 여성들의  
미소와 사랑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저의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내 자매와 딸 같았던 그녀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살 수 있  
는 날이 오리라고 믿기에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고 또 이것저것 따지고  
고민할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살다가 구호 활동지가  
결정되면 짐을 싸는 수밖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저마다 자기의 한계 또  
는 국경을 넘어서 온 사람들을 만나서 “아, 나는 혼자 아니야.” 하고 안심  
하게 되는 것이죠.



2017 세계 여성의 날

다쉬트-에-바르치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입을 맞추는 어머니

© Kate Stegeman / MSF

## Your Legacy Without Borders

유산의 또 다른 가치, 당신의  
유산기부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 Yann Libersart

유산기부는 단순히 금전만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종교, 정치, 성별에 관계없이 무력 분쟁, 전염성 질병, 자연재해, 의료 소외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생명에 희망을 남기는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당신의 유산기부로 더욱더 빨리, 더욱더 효율적으로, 마지막까지 남아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쓸 것을 약속합니다.

**\*유산기부 관련 문의:**

이메일 [minjung.oh@seoul.msf.org](mailto:minjung.oh@seoul.msf.org)

전화번호 02-3703-3554

월~금 9:00~18:00(주말/공휴일 휴무)

## 스쿨 펀드레이저 | 미래 나눔의 리더가 되어보세요!



통통 튀는 모금 아이디어를 갖고 있나요? 주변에 국경없는의사회를 알리고 싶나요?

평소 모금에 관심 있던 학생들, 교내 동아리들을 위해 ‘스쿨 펀드레이저’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교내 모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세상을 치료하는 일에 동참하길 원하는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의 ‘스쿨 펀드레이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당신의 후원이 지구촌 엄마와 아기의 내일을 지켜줍니다



마호르(Mahoro)는 첫 번째 아기를 사산하였고, 두 번째 불만에서 조산이었지만 건강하게 아기를 낳았습니다.



“세 아이를 모두 잃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엄마의 뒷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소속 산모인과의 정의, 콩고민주공화국

국경없는의사회는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케냐 등지에서 산모의 출산을 돕고 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자보건 의료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와 아기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국경없는의사회가 함께합니다.

## 후원신청서

### 후원자 정보

후원자명

휴대전화

### 일시후원 금액

#### 영양실조치료식

□ ₩45,000

영양실조 어린이 1명에게 5주 동안 치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정출산세트

□ ₩200,000

750명의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 \_\_\_\_\_

후원자님이 직접 기입해 주세요.



### 결제 방법

□ CMS자동이체 \*일시후원을 위해 1회만 출금됩니다.

□ 신용카드

예금주 성명

은행명

카드주 성명

카드사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6자리

카드번호

계좌번호

유효기간

년

월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개인정보처리방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원활한 후원을 위해 기본정보 및 후원정보를 위탁처리기관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충분히 읽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하여 위와 같이 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서명 또는 날인)

후원신청서 접수 방법 전화 후원센터 02-3703-3555 이메일 신청서 작성 후 사진을 찍어 [support@seoul.msf.org](mailto:support@seoul.msf.org) 로 전송



국경없는의사회는 1971년 의사와 기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인도주의 지원에는 정부,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윤리와 공정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이 원칙들은 인종, 종교,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선도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인정받아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파키스탄 신두 지역 임시 캠프에 국경없는의사회 이동 지원팀 방문 중 엄마와 아기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는 한 직원